

# 인증신청서

탐방 프로그램

<b>프로그램명</b>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입암산 탐방 트레킹)		
<b>목표</b>	호남의 3대산성중 하나이자 호국의 성지인 입암산성을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탐방함으로써 그 속에 존재하는 역사와 문화,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을 통하여 선조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이로움을 배움		
<b>운영장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원구역내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공원인근 또는 외부)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b>유형</b>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안내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b>범주</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해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사문화 <input type="checkbox"/> 해안생태 <input type="checkbox"/> 갯벌사구 <input type="checkbox"/> 거점해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체험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 <input type="checkbox"/> 자연경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경관 <input type="checkbox"/> 해안경관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슬라이드 <input type="checkbox"/> 탐방안내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b>운영대상</b>	<input type="checkbox"/> 초등학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성인 <input type="checkbox"/> 노인층(실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족단위 <input type="checkbox"/> 구분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b>운영시기</b>	<input type="checkbox"/> 봄 <input type="checkbox"/> 여름 <input type="checkbox"/> 가을 <input type="checkbox"/> 겨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 없음		
<b>모집인원</b>	10~20명 내외	<b>진행시간(분)</b>	240
<b>활동장소 및 특성</b>	입암산 갯바위 탐방로 중 입암산성내 윤진순의비까지 왕복 약 7.3km 본 탐방로는 입암산성, 윤진 순의비 등 역사·문화자원과 시원한 남창계곡 및 삼나무 숲이 있어 역사와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b>준비물</b>	무전기, 구급약품, 관련사진 자료, 음료		
<b>제출자료</b>	1. 인증신청서(별지서식-1) 2. 프로그램 진행개요(별지서식-2) 3. 해설 시나리오(별지서식-3) 4. 해설가용 참고자료(별지서식-4)		
국립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탐방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b>신청일자</b>	2009년    월    일	<b>신청인</b>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명)

#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입암산 탐방 트레킹)		
활동목표	호남의 3대산성중 하나이자 호국의 성지인 입암산성을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탐방함으로써 그 속에 존재하는 역사와 문화,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을 통하여 선조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이로움을 배움		
해설주제	입암산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역사와 문화&자연		
해설재료	입암산성, 성내리, 삼나무림, 습지	소요시간(')	240분

##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이동/해설
동기유발	1. 첫만남	국립공원 소개 및 친해지기		/5
주제별 해설	2. 정자동과 자하동	남창골 마을이름 유래와 관련된 역사인물		5/5
	3. 장성새재	옛 선비들의 과거길		5/5
	4. 산림욕의 효과	삼나무 숲에서의 산림욕		5/20
	5. 입암산성의 역사	입암산성의 역사와 전체모습		20/10
	6. 남문성곽	입암산성의 축성과 구조		20/10
	7. 송군비 장군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과 송군비장군에 대한 역사해설		5/5
	8. 윤진순의비	임진왜란과 윤진장군에 대한 역사해설		20/10
	9. 맨발로 걷기	숲길 맨발로 걸으며 자연 느끼기		/5
	10. 옛 성내리 마을	옛 성내리 마을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생활상	사진자료	10/5
	11. 산성내 습지	습지의 역할		/5
	12. 녹두장군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의 마지막 여정		10/5
	13. 송정행상각자	나라와 자연을 잃은 슬픔		35/5
	마무리	14. 마무리	소감나누기 및 몸풀기 체조	

신청인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명)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첫만남	국립공원 소개 및 친해지기
1. 첫만남	<p>여러분 안녕하세요(탐방객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며).</p> <p>저는 오늘 여러분과 입암산 탐방 트레킹을 함께 할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이렇게 내장산국립공원남창지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p> <p>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이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드시죠?(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좋습니다. 그럼 모두 마음을 비우시고 자연에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할 프로그램은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입암산 탐방 트레킹)이라는 프로그램 입니다.</p> <p>탐방트레킹이라고 해서 단순히 정상정복만을 목표로 삼는 일반 산행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프로그램은 역사와 자연에 대하여 배우고 참여할 수 있으면서 아울러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p> <p>또한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쉽게 와닿고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p> <p>앞으로 약 4시간동안 입암산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을 직접 살펴보고 아울러 이곳의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과 지혜를 엿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p>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기에 앞서 국립공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곳 입암산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 보고, 문화유산의 보고, 빼어난 자연경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공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을 자원,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방문하신 이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이곳 입암산을 중심으로 한 남창지구는 내장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1971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과 장성군 북하면의 천년고찰 고불총림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입암산 3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백암산과 입암산을 저희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호남 3대 산성중의 하나인 입암산성과 연중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남창계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입암산이라는 명칭은 멀리서 보면 바위가 마치 갓(草笠)을 쓴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갓바위에서 유래되었는데 갓 입(笠)자에 바위 암(岩) 자를 써서 입암산이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왜 중요한 곳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참여유도 : 쓰레기투기, 자연훼손행위, 비지정탐방로 이용, 야영 및 취사, 흡연, 애완동물 입장 등 답을 유도하고 보충설명)

자 이제까지 이곳을 포함한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무엇을 잘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 빠트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산행전 5분 스트레칭 및 간단한 운동을 통하여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국민체조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앞을 보시면 안내간판에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저를 잘 따라해 주세요(스트레칭 진행)

모두 몸을 잘 풀으셨나요?

이제 준비운동까지 마쳤으니 산에 오르는 일만 남았겠죠? 해설을 위하여 쉬어 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라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산행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 정자동과 자하동	<p>남창골 마을이름 유래와 관련된 역사인물</p> <p>이곳(새재화장실)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p> <p>여러분 혹시 이곳에 오시면서 남창이라는 지역이름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지 않았나요?(대답 뒤에)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곳 남창지역의 유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p> <p>이곳 입암산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성을 쌓았으며 고려때에는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내고 조선시대로 내려와서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은 곳입니다.</p>
2. 남창골 마을이름 유래와 관련된 역사인물	<p>전쟁을 오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때 큰 곡식 창고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써 성의 남쪽에 있었다고 하여 남창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곳 바로 옆에 전남대 수련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곳이 바로 예전에 곡식창고가 있던 곳입니다.</p> <p>그럼 나머지 북창은 어디를 가리킬까요?(대답 뒤에) 네 맞습니다. 반대편 성의 북쪽인 정읍쪽을 북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창골 주변의 마을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p> <p>남창골에는 정자동, 성내리, 자하동 등이 있는데 이런 마을의 이름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p> <p>흔히 마을이름이 지어지는 경우는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풍수 지리적 위치 그리고 그 마을과 관련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짓는</p>

경우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한 정자동의 경우는 그 마을에 정씨(鄭氏)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고, 그 정씨의 정자가 있어서 정자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성내리는 왜 성내리라는 이름이 되었을까요?(참여유도)네 방금 정답을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성내리는 성안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성내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하동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참여유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죠? 자하동이란 마을 이름은 사람의 호를 따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하동은 자하(紫霞) 변경운(邊慶胤) 선생이 은거하면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하 선생이 얼마나 유명하기에 호가 마을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변경운 선생은 1574년, 이곳 장성에서 망암 변이중과 오씨 사이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광해군(1575~1641)시절에 교서관 저작이란 말직으로써 당시 국정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상소하여, 집권대신들의 미움을 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선생은 지금의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자하동에 은거하여 평생을 성리학설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으며, 조정에서 선생에게 관직에 다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운 선생이 남창골에 은거하면서 남창골에 자하동이라는 마을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의 마을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요?(참여유도)네. 아마도 다들 재미난 사연을 지니고 있을겁니다. 그럼 이번엔 각자 자신의 이름이 붙은 마을이름을 상상해볼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장성새재	<p>옛 선비들의 과거길</p> <p>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p> <p>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입암산성 남문 방향으로 이곳 갈림길에서 위쪽으로 가는 곳입니다(탐방안내도를 가리키며).</p> <p>그럼 여러분들 방향에서 봤을때 오른쪽 길도 있는데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참여유도) 네 맞습니다. 지도에 나온 것처럼 정읍으로 향하는 길입니다.</p> <p>이 길을 따라 약 1시간 정도 걷다보면 장성새재라는 이름의 고개의 정상이 나오는데 그 곳은 입암산성에 주둔했던 병사들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으로써 민가와 주막이 번성했던 곳입니다.</p> <p>이 지역 우리 조상들은 이길을 통하여 정읍과 전주를 거쳐 한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p> <p>영남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위해 한양으로 향할 때 문경새재를 넘어서 힘든 과거길에 올랐던 반면 호남선비들은 과거를 보기위해 이곳 장성새재를 넘어서 과거 길에 올랐던 것이랍니다.</p> <p>여러분 그럼 새재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p> <p>그에 대해서는 3가지의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p> <p>첫번째로 고개가 새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어졌다는 설,</p> <p>두번째로 사이재가 변했다는 설,</p>
3. 옛 선비들의 과거길	



세번째로는 고개가 너무 높아 새도 중간에 잠시 쉬었다고 하여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입니다.

옛 문헌을 찾아보면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또는 억새풀이 많은 고개로 풀이되고 있으며 「고려사」에는 초점, 「동국여지승람」에는 조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는 장성새재 말고 과거길에 오를때 넘어갈 수 있는 고갯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곳의 이름은 갈재라고 합니다.

갈재는 현재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호남터널의 위에 있는 곳으로서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몽골의 침입시 고려의 왕이 피난을 가기 위해 넘었던 곳이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조선시대때 대낮에도 도둑들이 떼로 몰려다녀서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새재로 향하는 길을 보며 옛날 이 길의 모습을 상상해보도록 하죠. 어떠세요? 호랑이나 표범 등 무서운 짐승들과 도둑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개를 넘어 다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입암산성의 역사	<p>입암산성의 역사와 전체모습</p>
5. 입암산성의 역사와 전체모습	<p>올라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입암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주로 쉬었다 가는 곳으로써 은선동 갈림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도 잠시 짐을 내려놓고 앞 사람 어깨도 주물러 주면서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약 5분간 몸을 푼다)</p> <p>자 몸을 다 푸셨으면 이 앞에 있는 안내간판에 담긴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지도를 보면서 입암산성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p> <p>제가 처음 출발할 때 입암산성은 담양의 금성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왜 이곳이 호남의 3대 산성중 하나가 되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p> <p>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암산은 산세가 높고 험준한 반면에 꼭대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 그 형세가 매우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옛날 사람들은 입암산성의 형상을 마치 말의 구유와 같다고 하였는데 그 만큼 사방이 높으면서도 가운데는 널찍하여 성벽에 올라서면 한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시야를</p>



네, 잘 대략 시 피톤치드라는 말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대답 뒤애)  
공을 샅 샅을 들내려왔 분요. 특히 최만 들어 곳워니다. 자적이나 인터넷,  
방웅 제까지 산림속화 함께 역사와 정첵전인 용머흔애요.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실재, 무슨 위애)너무나 궁금하시죠?  
그럼 과현 피톤치드란 무엇 일까요?(대답 뒤애)

(대답 뒤애) 다들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많이  
알낸 계려는 분요. 설명드렸던 우리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실제 위알산선 을 만나치 흥발한 쉼니다. 엽기설, 약 20분이 접두만  
결우면, 시아산성 가 남문애 돌출할 식홀 이대봄단. 휘발성 향기 갈잘  
수려한 꼭 게신 기치를 잘 챙기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남쪽을 를 이동) 숲 속에 를 어졌을 때 풍기는 시원한 숲의 냄새가 바로 피톤치드  
인데요.

피톤치드는 숲 속의 각종 균이나 미생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휘발성 물질이지만 사람에게는 더없이 이로운 부분이 많아  
실제로 숲에서 요양하는 많은 환자들이 이로 인하여 효과를 보았  
습니다.

피톤치드와 관련된 숲의 치료 효능에 대한 의미 깊은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에는 결핵환자들이 넘쳐 이들을 수용할 병실이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넘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병원 뒤뜰 숲에 임시로 텐트 병동을 만들어 환자  
들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숲 속에 수용한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병원  
안의 환자에게 비하여 훨씬 높았습니다. 병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학술지에 보고하면서 그 이후로 숲의 치료 효과가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만큼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숲은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증거겠죠?

이 피톤치드는 주로 활엽수 보다는 침엽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침엽수 중에서도 다른 나무들 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삼나무나 편백나무가 더 많이 분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남창계곡은 삼나무, 편백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를 온 몸 가득 받을 수 있으며 바로 옆 계곡에서는 두통과 호흡기 질환을 억제하는 음이온 성분이 발생하니 산림욕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은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질문정리 후에) 네 많이들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산림욕은 어느 계절에 해도 상관없지만 피톤치드 발산량이 가장 많아지는 계절인 봄과 여름 중 날씨가 맑고 바람이 적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피톤치드와 산림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벌써부터 몸에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 같죠?(의견정리)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발끝만 보면서 걷지 마시고 손을 펼치며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 남문성곽	<p>입암산성의 축성과 구조</p> <p>여러분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입암산성에서 남아 있는 성문 중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남문입니다.</p> <p>방금 전 반듯하면서도 한돌 한돌 정성스럽게 쌓여진 웅장한 산성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의 모습이 여러 분 보이던데요 이곳에서는 입암산성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 곳이며 또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p>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이 많아 산성이 발달한 나라로 교통의 요지에는 산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성은 지형에 따라 산성과 평지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p> <p>이중 산성의 종류는 크게 테뫼식 산성과 포곡식 산성이 있는데요. 테뫼식 산성은 산 정상 중심을 중심으로 산의 7~8부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되게 한 바퀴를 둘러 산 정상에 마치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쌓은 산성이며 그 모양으로 인해 시루성이라고도 불립니다.</p> <p>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축성연대가 오래된 것이 많으며 소규모 산성이 이에 속합니다. 테뫼식 산성은 단기 전투에 대비한 산성입니다.</p> <p>포곡식 산성은 산등성이 지형을 따라 성을 쌓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계곡을 포용하고 축성된 것을 가리킵니다.</p>
6. 입암산성의 축성과 구조	

내부에 수원(水原)이 풍부하고 활동 공간이 넓고, 외부에 대한 노출도 테피식보다 훨씬 적어 주로 장기 전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날 입암산성은 테피식과 포곡식 중 어디에 속하는 산성일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맞습니다. 입암산성은 산등성이를 따라 최대한 자연지형을 이용해 돌을 쌓아올려 만든 포곡식 산성입니다.

지금부터 성벽 위를 걸으면서 옛날 사람들이 성벽을 어떻게 쌓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치 부분까지 이동)

지금 우리들이 걸어온 성곽과 옛날 성곽은 똑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대답 뒤에) 아쉽게도 아니랍니다.

성곽은 크게 성체와 여장으로 나누는데 지금의 남문성곽은 이중, 성체만을 복원한 것으로 전쟁 시 몸을 숨겨 총과 포를 쏠 수 있는 여장부분과 남문의 성문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있는 곳은 치(雉)라고 합니다.

치에는 이곳처럼 생긴 네모형 치와 반원형처럼 생긴 반원형 치가 있습니다. 치는 주로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성벽을 올라오는 적군을 사살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 손끝을 봐주세요. 밖으로 튀어나온 돌이 보이시나요?(대답 뒤에)

그럼 저 돌들은 왜 밖으로 튀어나와 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요. 저 돌은 마치 사람의 눈썹처럼 생겼다고 해서 미석이라고 부르는 돌로써 적군이 성벽을 기어오를 때 성벽에 쉽게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남문의 끝부분으로 이동)

이곳부터는 산성이 안보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왜 산성을 쌓지

않았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이곳은 굳이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천연의 암벽이 있어 성벽을 쌓지 않아도 수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암산성에는 이처럼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성벽을 쌓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하여 지형을 최대한 이용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암산성의 구조와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를 봐주세요(성벽을 만지며)

지금은 덩굴과 이끼로 덮여 있는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돌은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손길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닿았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몽골군과 왜병 등 침략군에 대항하여 항쟁을 벌이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저 성벽위에서 쓰러져 갔을까요?(의견정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송군비장군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과 송군비장군에 대한 역사해설
7.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과 송군비장군	<p>여러분 여기로 모여주십시오.</p> <p>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입암산성은 두차례의 전쟁, 즉 몽골군의 침입과 왜적의 침입을 견뎌낸 자랑스런 호국의 성지입니다. 그럼 잠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p> <p>몽골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때는 어느 시대일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그러면 몽골군은 우리나라를 총 몇 차례나 침략했을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p> <p>네 다들 상식이 풍부하시네요. 그럼 이번에는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내었던 입암산성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p> <p>방금 여러분께서 질문에 답한바와 같이 몽골군은 고려 때 총 6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침략하였는데요. 이곳 입암산성에서는 몽골군의 마지막 6차 침입 때인 1256년 (고종43년)에 고려군과 몽골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p> <p>6차 침입 때 몽골군은 특히 호남지역을 공격하였는데 당시 서해의 여러 섬들을 점령하기 위해 몽골의 군대가 출병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이광과 송군비 두 장군을 보내 이들을 막아내려 하였습니다.</p> <p>두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길을 나누어 영광으로 내려왔으나 이미 몽골군이 점령하여 굳건히 지키고 있자 어쩔 수 없이 영광은</p>

섬으로 들어가 수비하였으며, 송군비는 입암산성을 지키게 되었답니다.

송군비 장군이 입암산성에 들어와 보니 이미 젊은 장정들은 몽골군에 투항하여 노약자들만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몽골군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송군비 장군은 꾀를 내어 몽골군을 유인하였는데 일부러 나이 많은 노인과 마른 사람들을 골라 성 밖에 내보내 몽골군이 정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본 몽골군은 입암산성 안에 군량미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성벽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송군비 장군은 몽골군을 기습하여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적장 4명을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떠세요? 몽골군을 막아내었던 송군비 장군의 지혜가 참으로 뛰어나죠?(대답 뒤에)

그럼 몽골군과 전투를 벌였던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산성 내부로 이동할까요?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8.윤진순의비	<p>임진왜란과 윤진장군에 대한 역사해설</p> <p>여러분 여기를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하나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누구의 비석일까요?(대답 뒤에)</p> <p>네 아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이 비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끌고 왜군과 전투를 벌인 윤진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비석입니다.</p> <p>그럼 여기서는 임진왜란 당시 이곳 입암산성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p> <p>1592년 도요토미히데요시에 의해 통일을 이룬 일본은 명나라를 공격하는 길을 빌려달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p>
8.임진왜란과 윤진장군에 대한 역사해설	<p>여러분 이를 뭐라고 부르나요?(대답 뒤에)</p> <p>네 맞습니다.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우수한 무기와 철저한 준비를 갖춘 일본군의 공격에 당시 조선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였습니다.</p> <p>급기야 선조임금은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과 이순신이 이끈 수군의 승리로 인하여 전력을 재정비하였고 결국에는 일본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p> <p>임진왜란의 승리에는 의병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이 뒷받침되었는데, 특히 입암산성과 관련된 의병장으로 윤진을 들 수 있습니다.</p> <p>그럼 윤진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참여유도)</p>

윤진은 남원 윤씨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하서 김인후 선생이 일찍이 크게 될 인재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학문에도 불구하고 입신양명에 관심이 없어 과거를 보지 않았답니다.

효행도 뛰어나서 부모의 삼년상을 극진히 하였는데 그 비통함이 다른 사람마저 감동을 주어 주변사람들의 천거를 통해 음서(蔭敍)에 의하여 사옹원봉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나자 윤진은 다음해 전라도로 왜병이 침입할 것을 예견하고 입암산성의 수축을 전라도관찰사에게 건의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입암산성 수축 직을 맡게 되어 군량미를 갖추고 포루를 보수하였습니다.

그 후 1597년 정유재란때 왜병이 남원을 점령하고 입암산성으로 진격을 하자 모든 관원이 도망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지들이 윤진을 찾아와 ‘나라에서 자네에게 입암산성을 보수하라고만 했으니 같이 피난을 떠나자’ 라고 말하니 이에 윤진은 ‘성을 보수하라는 것은 성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의병 백여명을 모아 끝까지 입암산성을 사수하다가 산성의 함락과 함께 결국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윤진의 순국사실을 들은 그의 처 권씨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살아서 오욕을 치르니 차라리 죽겠다며 지아비를 따라 자결을 하였는데 왜군들도 부인의 절개에 감동하여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전쟁이 끝난 후에 윤진은 좌승지로 추증되었고 권씨에게는 정려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순의비는 윤진이 순국한지 146년이 흐른 뒤에 세워진 것으로써 영조 18년

(1742)에 장성현감 이현윤이 입암산성을 정비하면서 윤진의 숭고한 뜻을 기려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입암산성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던 의병 중 한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끝까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싸웠던 조상들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9. 맨발로 걷기	<p>숲길 맨발로 걸으며 자연 느끼기</p> <p>이제 왔던 곳을 다시 되돌아 갈텐데요. 내려가기에 앞서 맨발로 숲길을 걷는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이곳 윤진순의비부터 마을 터까지 약 200m 구간은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사무소에서는 이 구간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간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발바닥 신경이 사람의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텐데요.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에 전달되는 마사지 효과로 인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장애 자극을 주어 소화와 배변 활동이 활발하게 된 답니다. 혹시 여러분중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대답뒤에) 그렇다면 숲길 맨발 걷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들 저와 같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이 길을 걸어볼까요?(모두 신발을 벗은 후) 처음에는 맨발의 감촉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차츰 익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맨발의 감촉에 더욱 집중을 하다보면 모든 감각이 더욱 예민해 지기 때문에 푹신푹신향 흙,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따사로운 햇살, 새소리와 함께 숲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의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어느 순간 나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p>
9. 숲길 맨발로 걸으며 자연 느끼기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린다면 이길을 저희 직원들이 깨끗하게  
치워놨지만 자연 그대로의 길이므로 가시나 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을 잘 보면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맨발로 걷기)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0. 옛 성내리	<p>옛 성내리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생활상</p>
10. 옛 성내리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생활상	<p>이곳이 바로 성내리 마을터입니다.</p> <p>숲길을 맨발로 걸으니 평소 우리들이 신을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p> <p>흙을 맨발로 자주 밟으며 자연과 가깝게 지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았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p> <p>이곳에서 숲길 맨발 걷기 체험을 마치고 발을 씻겠습니다. 깨끗이 씻으시면서 마사지도 해주세요. 그래야 발의 피로가 잘 풀린답니다.</p> <p>발을 씻으시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허물어진 돌담의 흔적도 보이고 예전에 쓰였던 절구의 모습도 보입니다.</p> <p>왜 그럴까요?(참여유도/의견나누기)</p> <p>네 이곳은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성내리라는 이름의 마을입니다.</p> <p>왜 성내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대답 뒤에)</p> <p>네 맞습니다. ‘성안에 있는 마을’ 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답니다.</p> <p>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옛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인은 갓을 쓰고 처녀, 총각은 땃기를 단채 살았는데, 6.25전쟁이후 점차 마을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1987년 마지막 한집이 떠난 후 경작했던 곳이 습지로 변하게 되었답니다.</p>



5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이 근대화가 되어갈때 입암산성의 성내리에는 근대화의 문명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랍니다.

그럼 이처럼 험한 산속에서 옛 성내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곳 성내리 마을의 전경과 주민들의 모습입니다.(옛사진들을 보여주며) 넓은 터와 초가집 지붕들의 모습, 땀을 두른 주민 등 많은 부분이 지금과 많이 다르죠?

이곳의 주민들은 산속 깊은 골짜기에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밭이나 논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주변의 산에서 약초를 캐고, 숯도 굽고 버섯도 키우면서 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도 주민들이 소를 이용하여 경작을 했었는데요 이곳 성내리 가까운 곳에는 소가 산에서 뒹굴었다고해서 이름이 붙은 ‘소둥근재’ 라는 곳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명칭이죠?(대답 뒤에)

피로가 다 풀리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이곳 주민들이 논농사를 지었던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까요?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1.산성내습지	습지의 역할
11. 습지의 역할	<p>이곳이 바로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논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어떤가요? 이곳이 논이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가시나요?(의견정리)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곳은 논농사를 짓던 곳이 지금은 습지로 바뀐곳입니다. 즉 농사를 지어서 주민에게 곡식을 제공해 주던 이곳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게되자 마을내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과 빗물 등이 고여 숲과 우리에게 이렇게 이로움을 주는 좋은 환경으로 변한것입니다.</p> <p>그럼 습지란 어떤 곳을 말할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p> <p>네 습지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을 담고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인제 대암산 용늪이나 경남 창녕의 우포늪에 대해서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p> <p>이곳 습지는 분류적으로 본다면 산지습지에 해당이 됩니다.</p> <p>그럼 산지습지에 해당되는 이곳 입암산 습지가 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로는 첫째 이곳처럼 산지에 발달한 습지에 의존하는 생물의 개체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구요.</p> <p>두 번째 이유로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p> <p>그럼 습지가 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다같이</p>

이야기해 볼까요?(습지에 대한 의견나누기)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습지는 자연의 정화조 기능을 하며 항상 물기를 머금고 있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며, 수변부 침식방지, 온실효과 방지, 홍수방지, 기후안정, 지하수 재충전 등 많은 소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지를 떠올리면 칙칙하고 벌레 많으며 냄새나는 곳이라고 생각 한적도 있었을텐데요.

오늘의 경험을 통해 습지가 왜 중요하며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 각자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2. 녹두장군 전봉준	<p>녹두장군 전봉준의 마지막 여정</p>
12.동학운동과 녹두장군 전봉준장군	<p>다시 남문지에 도착했습니다.</p> <p>이곳에서 잠시 쉬며 입암산성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인물을 한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p> <p>‘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노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실겁니다. 누구일까요?(참여유도)</p> <p>네 맞습니다.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장군입니다.</p> <p>이곳 장성은 반외세와 반봉건을 내세우며 동학운동을 벌였던 전봉준장군과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인근에 위치한 장성군 황룡면에는 전봉준장군이 3,000명의 동학군을 이끌고 관군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대승을 거두었던 곳인 황룡전적지가 있으며 이곳 입암산성은 전봉준장군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한 곳이기도 합니다.</p> <p>자 그럼 지금부터 전봉준장군이 입암산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역사적 현장속으로 들어가 볼까요?</p> <p>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던 전봉준장군 일행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동지들을 모아 재기하기 위하여 이곳 입암산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관군의 추격이 계속되자 전봉준장군 일행은 백양사로 피신하였다가 순창으로 빠져나가게</p>

되었고 결국 순창에서 옛 동지의 밑고로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이곳 입암산성은 전봉준장군이 마지막 재기를 노리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사 청류암 부근에 장군샘이라 불리는 샘물이 있어 전봉준의 자필로 알려진 남천감로 각자가 남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곳 입암산성은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려했던 우리 조상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곳이자 국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적 성지입니다.

후손인 우리들은 이곳을 더욱 아끼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남겨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역사의 흔적을 찾아 이동할까요?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3. 송정행상 각자	나라와 자연을 잃은 슬픔
13. 나라와 자연을 잃은 슬픔	<p>이곳에서 잠시 쉬어 가면서 입암산에서 숨쉬고 있는 역사의 현장 중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p> <p>우리는 오늘 입암산성을 배경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하여 배웁니다.</p> <p>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침략을 버텨내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이후 36년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p> <p>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수많은 피해와 수탈을 당하였는데요. 그 대상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p> <p>(송정행상각자를 가리키며)</p> <p>앞에 보이는 바위는 일제시대의 피해를 온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p> <p>이 글은 일제시대때 장성에 살았던 우편국장 송정행삼랑과 소림소삼랑이 1929년에 새긴 글로써 자신들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p> <p>일제시대때 국권을 빼앗은 일본인들은 명산마다 정상부에 철심을</p>

박고 멋있는 바위에는 이렇게 각자를 통하여 자신들의 공덕을 새겨 넣었는데요.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 말고도 일제시대때 훼손된 자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해조수를 구제한다는 명목아래 호랑이, 늑대 등 야생동물들을 수 없이 죽이고 비행기의 원료로 쓰기위하여 수많은 소나무를 잘라 송진을 채취했던 것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침략에 의하여 훼손된 우리의 자연이 회복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소중한 자연이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4. 마무리	소감나누기 및 몸풀기 체조
14. 소감나누기 및 몸풀기 체조	<p>여러분 안전사고 없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p> <p>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에 맞춰 입암산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을 직접 살펴보고 아울러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p> <p>어떠세요? 오늘 함께 한 시간이 즐거우셨나요?(대답 뒤에) 또한 우리 선조들의 자연과 함께 했던 삶과 나라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을 배우셨나요?(대답 뒤에)</p> <p>그럼 오늘 보고 듣고 느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씩 이야기 해볼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p> <p>네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흘렸던 땀방울만큼이나 소중한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p> <p>그럼 이제 장시간 탐방을 하느라 힘들었을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고 분위기 전환의 시간을 갖는다.</li></ul> <p>오늘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길에 인근에 있는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지구에 들려 700년된</p>



<p>갈참나무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군락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십시오.</p>
---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1. 첫만남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li> <li>○ 바람직한 국립공원 탐방</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학술적, 문화적, 환경 또는 생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을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아름다운 곳을 국가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곳을 말하며, 1967년 12월29일 지리산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li> <li>20개 국립공원은 그 특징에 따라 산악공원, 해상 해안 공원, 사적공원으로 나누어집니다.</li> <li>1971년 11월17일 내장산과 백암산, 입암산을 포함하여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북 정읍시와, 순창군, 전남 장성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국립공원자연해설 안내서 P157</li> <li>○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서 P11</li> <li>○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남창지구 탐방안내서 P59, 60</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1. 첫만남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li> <li>○ 바람직한 국립공원 탐방</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국립공원 탐방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 합니다 :</li> </ul> </li> </ul> <p>탐방로가 아닌 지역에 출입하면 자연이 훼손되어 아프답니다.</p> <p>산불조심 :</p> <p>한순간의 실수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데 100년이나 소요된데요.</p> <p>자연사랑 공원사랑 :</p> <p>꽃이나 산나물 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면 야생 동식물이 살수가 없어요. 우리 후손들도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p> <p>애완동물을 데려 오지마세요 :</p> <p>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애완동물은 집에 두고 오세요.</p> <p>지정된 장소 밖에서는 취사 야영을 하지 맙시다. :</p> <p>취사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세요.</p>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국립공원자연해설 안내서 P157</li> <li>○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서 P11</li> <li>○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남창지구 탐방안내서 P59, 60</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2. 정자동과 자하동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름 유래</li> <li>○ 자하(紫霞) 변경윤(邊慶胤)</li> </ul>
참 고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은 마치 이름과 사람의 관계처럼 거주 집단 이나 거주 장소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인간의 의식주 전반에 걸친 생활양식·풍속·관습·사상·감정·신앙·전설 등이 투영된 언어라고 할 수 있다.</li> </ul> </li> <li>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명 연구의 필요성을 도수희(1999: 18~19)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li> <li>첫째, 국어의 계통, 고대 국어의 재구, 국어의 어원, 국어 변천사 등의 연구에 지극히 귀중한 자료가 된다.</li> <li>둘째, 한국의 역사, 역사 지리, 민속, 민담, 신화, 전설, 제도 등 문화사 전반 연구의 자료가 된다.</li> <li>셋째, 우리 민족의 성립 및 이동은 물론 타민족과의 문화사적 교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긴요한 자료가 된다.</li> <li>넷째, 지명학은 역사학, 고고학, 지리학, 민속학, 사회학, 경제학,</li> </ul>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63, 177p.</li> <li>○국립공원관리공단(2009).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 12~23, 66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2. 정자동과 자하동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름 유래</li> <li>○ 자하(紫霞) 변경윤(邊慶胤)</li> </ul>
참고자료	<p>설화문학 등에 대한 보조 과학이 될 수 있다.</p> <p>다섯째, 지명을 접두한 물명, 지명과 인명, 지명과 신조어 등과 의 깊은 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름 유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안(城內里)</li> </ul> </li> </ul> <p>입암산성 내에 있었던 마을로 전주이씨 . 천안전씨 . 의령남씨 등이 1970년대까지 살았다고 한다. 공자(孔子)의 유교를 다시 밝 힌다는 경정유도(更正儒道)를 믿으며 성인은 갓을 쓰고 처녀. 총 각은 댕기를 단채 살았던 곳으로 해방 후 까지 8호가 살다가 6.25때 가옥이 전소되고 마을민은 덕재리로 피난하여 5년만에 돌아 왔으나 산중 생활의 불편과 3년간의 흉년 등으로 1980년 1 호만을 남긴채 모두 타지로 이거하였다. 1987년 1호마저 정읍으 로 이거하고 농사만을 지으러 다닌다. 성내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생겨난 이름이다.</p>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63, 177p.</li> <li>◦국립공원관리공단(2009).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 12~23, 66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구분	보충자료 정리
2. 정자동과 자하동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름 유래</li> <li>○ 자하(紫霞) 변경윤(邊慶胤)</li> </ul>
참고자료	<p>- 자장동(自藏洞, 紫霞洞, 잣골)</p> <p>남창골 입구에서 2.5km 지점에 향로봉이 있고 여기에서 서북쪽산길로 2km쯤에 마을이 있다. 황주변씨(黃州邊氏) 경윤(慶胤, 1574~1623)이 모함을 피해와 은거하였으며 옥천육씨(沃川陸氏) 윤관(潤冠)이 일제때 들어와 6.25때까지 살았고 김해김씨(金海金氏)도 일제때 전북 정읍에서 들어와 1970년까지 살았다 한다. 일제때까지 15호가 살다가 해방후 12호(3호는 이거)가 남았는데 6.25때 전소되고 5년 만에 다시 10여호를 이루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4호가 남아있다. 자장동(自藏洞), 자하동(紫霞洞), 자장동(紫藏洞), 잣골, 자장동(子長洞)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력은 알 수 없으며 단지 「紫霞洞」이라는 동명은 변경윤의 호를 따서 붙인것이라는 설이 있다.</p> <p>- 남창(南倉)</p> <p>남창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5km 거리에 좌우로 형성된 곳으</p>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문화원(1989). 장성군마을사(북하면편). 297,298p.</li> <li>○주재경.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어교육(2001).</li> <li>고흥 지역 지명 연구. 1~2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2. 정자동과 자하동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름 유래</li> <li>○ 자하(紫霞) 변경윤(邊慶胤)</li> </ul>
참고자료	<p>로 원래의 남창터(서쪽)에는 1953년에 전대수련원이 들어섰으며, 우측(동쪽)에는 가옥이 형성되어 있다. 풍천임씨(豊川任氏)와 반남박씨(潘南朴氏)가 합방전에 들어와 6.25전까지 살았다고 한다. 해방 후 까지 7호가 살다가 6.25때 전소되고 8명(1호)이 사망하였으며 입암산성에서 사용한 남쪽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p> <p>- 정자동(亭子洞)</p> <p>남창골 입구에서 비포장 도로를 따라 동북쪽으로 3.5km 거리에 있다. 하동정씨(河洞鄭氏) 하곡(霞谷) 정운룡(鄭雲龍 , 1542~1593) 후손들이 1975년까지 살았으며 약 230년 전에 경주 이씨(慶州李氏) 명근(命根 , ?~?)이 담양에서 옮겨왔으며 일제때 행주기씨(幸州奇氏)가 들어와 살았다 한다. 정씨(鄭氏)의 정자가 있었다 하여 鄭子 또는 亭子洞이라 했다한다.</p>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문화원(1989). 장성군마을사(북하면편). 297,298p.</li> <li>◦주재경.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어교육(2001).</li> <li>고흥 지역 지명 연구. 1~2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2. 정자동과 자하동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름 유래</li> <li>○ 자하(紫霞) 변경윤(邊慶胤)</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하 변경윤(紫霞 邊慶胤 1574~1623)</li> </ul> </li> </ul> <p>변경윤 선생은 1574년, 이 곳 장성에서 망암 변이중과 오씨 사이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변이중 선생은 조선 선조때, 화차를 발명하여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 싸움에 이를 사용, 크게 승리를 거두도록 한 유명한 분이다.</p> <p>이름은 경윤이며, 호는 자하, 본관은 황주로써 친성이 아버지를 닮아 인품이 정중하며,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한 번 읽고 이해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놀라움을 사곤 하였다.</p> <p>나이 스무 살 무렵에 술 마시고 시를 짓는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풍류로 나날을 보내게 되어, 어느 날 이를 눈치 챈 아버지가 그를 불러다가 매우 꾸짖었다. 그 후 아버지의 말씀에 크게</p>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문화원(1989). 장성군마을사(북하면편). 297,298p.</li> <li>◦주재경.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어교육(2001).</li> <li>고흥 지역 지명 연구. 1~2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2. 정자동과 자하동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름 유래</li> <li>○ 자하(紫霞) 변경윤(邊慶胤)</li> </ul>
참고자료	<p>깨달은 바 있어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할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하며, 성혼, 사계 김장생 등 당시의 유명한 학자들에게 글을 배우면서 정진하였다.</p> <p>광해군(1575~1641) 시절에 구언령(求言令)을 내리자, 그는 교서저작이란 말직으로써 당시 국정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고하면서, 특히 집권대신들이 인목대비를 폐위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려 미움을 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왔다.</p> <p>고향에 내려온 이후에는 지금의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자하동에 은거하여 평생을 성리학설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으며, 조정에서 관직에 다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거절하였다.</p>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문화원(1989). 장성군마을사(북하면편). 297,298p.</li> <li>◦주재경.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어교육(2001). 고흥 지역 지명 연구. 1~2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3. 장성새재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성새재</li> <li>○ 갈재</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재(鳥峙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에서 전북 정읍시 입암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 경계 지대에 형성되었던 마을로 입암산성에 주둔했던 군사의 가족들이 살았으며 주막이 성했다 한다. 일제때 20여호가 살다가 6.25때 전소되었으며 이후 10여호가 들어섰으나 1970년 정부시책으로 마을민이 타지로 이거한 후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새재」라는 이름은 고개가 새의 목처럼 잘룩하게 생겼다하여 붙여졌다는 설과 사이(間) 재가 변했다는 설, 새(鳥)도 쉬어 넘기 때문에 생겼다는 설이 있다.</li> <li>-장성새재길을 옛날부터 호남에서 서울로 가는 이동로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호남 선비들의 과거길이기도 하였다. 한때 군사도로로 이용되기도 한 이 탐방로는 평탄하여 산책형 탐방로로 활용하기 좋은 곳이다.</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8p</li> <li>◦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 298p</li> <li>◦신정일/휴머니스트(2004). 다시쓰는 택리지2(전라경상편).101p</li> <li>◦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143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3. 장성새재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성새재</li> <li>○ 갈재</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갯길이 호젓하고 험해서 도적이 떴로 모여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므로 나그네가 지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15년에 보방수를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글귀에도 나타난다. 중략 남도사람들이 서울을 갈때 넘을수 밖에 없었던 갈재는 높이가 276m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라안에서 제법 험한 고개로 알려져 노령이라 불렸으며 여러 전설들이 생겨났다.</li> <li>- 전남북을 갈라 놓은 노령산맥을 넘어 여러개의 재(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써 남도인의 애환이 서려있다. 立岩山과 方丈山사이의 협곡에 있는 이 재는 국도 1호선과 호남선 철도, 호남고속도로가 모두 이곳을 통과하며 조선 중기(成宗代 라는 설도 있음) 유명한 기생 갈애(蘆花)의 전설이 얽혀 「갈재」라 부른다는 설이 있으나 『東國輿地勝覽』에는 「葦嶺(위령)」이라</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8p</li> <li>◦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 298p</li> <li>◦신정일/휴머니스트(2004). 다시쓰는 택리지2(전라경상편).101p</li> <li>◦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143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3. 장성새재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성새재</li> <li>○ 갈재</li> </ul>
참고자료	<p>(기록하고 「蘆嶺」으로도 부른다고 하였고, 『高麗史節要』 현종 顯宗) 2년 1월 條에 丁亥일에 글안(거란)의 침입으로 왕이 「노령」을 넘어 나주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미 이 때도 「노령」이라고 부른 것 같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새지로서 재의 동편 입암산 정상에는 笠岩山城이 있고 서쪽 봉우리 에는 「도독성」이라 부르는 성축기지가 있으며 『東國輿地勝覽』· 『長城邑誌』에 「위령군보(葦嶺軍堡)」를 설치하여 행인들을 도둑들로부터 보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도로가 나기전 구 갈재는 현재의 국도보다 동쪽인 입암산 서단을 넘었으며 철도와 고속도로는 터널을 뚫고 통과한다.</p>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8p</li> <li>◦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 298p</li> <li>◦신정일/휴머니스트(2004). 다시쓰는 택리지2(전라경상편).101p</li> <li>◦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143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3. 장성새재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성새재</li> <li>○ 갈재</li> </ul>
참고자료	<p>- 위령군보(葦嶺軍堡) : 嶺路幽厄盜賊羣聚白晝殺掠行旅不通                      今上十五年設堡防守 (영로유애도적군취백화살약행여불통                      금상십오년설보방수) 『東國輿地勝覽』 - 고갯길이 호젓하고                      험해서 도적이 떼로 모여 대낮에도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므로 나그네가 지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임금                      15년(成宗, 1484년)에 보방수를 두었다)                      今名嶺路幽厄盜賊羣聚白晝殺掠行旅不通 成廟十五年設堡防守今牙                      (금명노령영로유애도적군취백화살약행여불통 성묘십오년설보방                      수금아) 『長城邑誌』 (1927년)</p>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8p</li> <li>◦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 298p</li> <li>◦신정일/휴머니스트(2004). 다시쓰는 택리지2(전라경상편).101p</li> <li>◦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143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4. 산림육의 효과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톤치드</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톤치드는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톤’ 과 죽이다라는 뜻의 ‘사이드’ 가 합쳐진 것으로, 식물이 내뿜는 휘발성 향기 물질이다. 이 말은 스트렙토마이신을 발견해 결핵을 퇴치한 공로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러시아 태생의 미국 세균학자 왁스먼(Waksman)이 처음으로 이름 붙였다.</li> <li>레닌그라드대학의 토킨(Tokin)박사는 피톤치드의 효능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숲 속에 들어갔을 때 풍기는 시원한 숲의 냄새가 피톤치드이며, 이것은 수목이 주위의 구균, 디프테리아 등의 미생물을 죽이는 방어용 휘발성 물질이라고 주장하였다.</li> <li>실제로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은 폐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위한 좋은 요양지이기도 하다. 20세기 초에 유행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폐결핵의 그 당시 유일한 치료법은 숲에서 요양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보았다.</li> </ul>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으로 떠나는 여행(2007). 심원섭/지성사 29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4. 산림욕의 효과	
주요어 정리	○ 피톤치드
참고자료	<p>숲의 치료 효능은 1900년대 초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보고한 임상 실험 결과로 과학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당시 미국에는 창궐하는 폐결핵 때문에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 이들을 수용할 만한 병실이 크게 부족했다. 그래서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넘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병원 뒤뜰 숲에 임시로 텐트 병동을 만들어 결핵 환자들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숲 속에 수용한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았다. 병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학술지에 보고하면서 숲의 치료 효과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p>
참고문헌 및 출 처	○ 숲으로 떠나는 여행(2007). 심원섭/지성사 29p.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4. 산림육의 효과																									
주요어 정리	○ 피톤치드																								
참 고 자 료	○ 국내 침엽수 수종별 피톤치드 함량 (단위 : ml/100g)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종</th> <th>겨울</th> <th>여름</th> <th>수종</th> <th>겨울</th> <th>여름</th> </tr> </thead> <tbody> <tr> <td>전나무</td> <td>2.9</td> <td>3.3</td> <td>삼나무</td> <td>3.6</td> <td>4.0</td> </tr> <tr> <td>구상나무</td> <td>3.9</td> <td>4.8</td> <td>편백나무</td> <td>5.2</td> <td>5.5</td> </tr> <tr> <td>소나무</td> <td>1.7</td> <td>1.3</td> <td>화백나무</td> <td>3.1</td> <td>3.3</td> </tr> </tbody> </table>	수종	겨울	여름	수종	겨울	여름	전나무	2.9	3.3	삼나무	3.6	4.0	구상나무	3.9	4.8	편백나무	5.2	5.5	소나무	1.7	1.3	화백나무	3.1	3.3
	수종	겨울	여름	수종	겨울	여름																			
	전나무	2.9	3.3	삼나무	3.6	4.0																			
	구상나무	3.9	4.8	편백나무	5.2	5.5																			
소나무	1.7	1.3	화백나무	3.1	3.3																				
참고문헌	○ 숲으로 떠나는 여행(2007). 심원섭/지성사 29p.																								
및																									
출 처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4. 산림육의 효과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침엽수 수종별 피톤치드 함량</li> <li>○ 음이온</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이온은 일반적으로 폭포나 숲 근처에 많다. 폭포는 중력 때문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때 위치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하면서 음이온이 생긴다. 물살이 센 계곡이나 파도 치는 해변에 음이온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li> </ul> <p>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에는 음이온 비율이 높는데 보통 음이온이 공기1세제곱미터당 700개 이상이 되어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음이온이 1,000개 이상인 경우 알파파가 활발히 활동해 긴장이 완화된다. 또한 음이온이 많은 공기는 두통을 없애주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신경호르몬인 자유히스타민(free histamin)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p>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으로 떠나는 여행(2007). 심원섭/지성사 29p.</li> <li>○ 숲으로 떠나는 여행(2007). 심원섭/지성사 56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4. 산림욕의 효과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인 산림욕 방법</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욕을 피톤치드 발산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피톤치드 발산이 가장 많은 계절은 봄과 여름이므로 이때가 좋다고 할 수 있다.</li> <li>피톤치드 발산량은 기온과 관계 있는데,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이때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몸에서 땀이 많이 나고 쉽게 피로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쾌적하게 느끼고 비교적 피톤치드 발산량도 많은 오전 10시경이나 오후 2시경이 산책하기에 좋은 시간이다.</li> </ul>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으로 떠나는 여행(2007). 심원섭/지성사 30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5.입암산성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암산성 역사</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암산성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암산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지형적 원인으로 삼한시대부터 산성이 축성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li> </ul> </li> <li>(중략)</li> <li>입암산성이 처음 기록에 보이는 것은 고려사절요(高麗史要)인데 고려 고종 43년(1256) 장군 송군비가 몽고 침략군에 맞서 승리를 거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도 적상산성 금성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수축과 개축을 거듭하였고 정유재란(1597~1598) 때에는 윤진(1548~1597)이 의병을 모아 왜병에 대항해 끝까지 항쟁하다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li> <li>(중략)</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28~129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5. 입암산성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암산성 현황</li> <li>○ 암문</li> <li>○ 장대</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암산성 기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의 규모 · 둘레: 약 5,200m</li> <li>· 높이: 지형에 따라 1~3.7m 내외</li> <li>- 성곽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문: 문헌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고 있으나 현재 남문지와 북문지 1개씩이 남아 있다. 특히 남문은 성곽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li> <li>· 암문: 암문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밀 문으로 입암산성에는 현재 서측·북측·동측의 3개의 암문지가 발견되었다.</li> <li>· 장대 및 포루: 장대는 먼 곳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 높은 건축물로 주변을 경계하거나 전쟁시 지휘를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특히 포대를 갖추고 있는 곳을 포루라 부르기도 한다. 입암</li> </ul> </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28~130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6. 남문성곽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li> <li>○ 수구</li> </ul>
참고자료	<p>산성의 장대 및 망대지는 동서남북 4개의 장대지, 입암망대지와 망덕봉 망대지의 6개소의 터가 남아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곡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장산 국립공원 내 입암산 정상으로부터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 입암산성은 전형적인 포곡식(산의 능선에 따라 쌓은) 석성이다. 예로부터 정읍과 장성의 경계이자 노령산맥의 주맥인 입암산은 지형이 높고 험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입암산성 지역은 외부에서는 살펴보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천연 요새지역이다.</li> </ul> </li> <li>○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암산성에 설치된 치는 남쪽성벽, 남문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67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나, 근래에 복원된 것으로 그 규모는 성 외벽으로부터 약 6m 정도 돌출되었고 폭 7.2m로 이</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28p</li> <li>○ 전라남도 장성군청. (2004) 장성입암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51~74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6. 남문성곽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li> <li>○ 수구</li> </ul>
참고자료	<p>루어 졌으며, 높이는 성벽과 마찬가지로 약 5.3m 정도로 미석부까지 복원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성벽을 따라 약 40m 지점에 위치하고, 보수된 성벽 하부에 위치하여 물을 성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크기는 성 안쪽이 90X90cm이고 바깥쪽은 1X1m 정도이며, 길이는 약 7.7m 정도로 사람 한 명 정도가 통행할 수도 있는 크기임</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28p</li> <li>○ 전라남도 장성군청. (2004) 장성입암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51~74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7. 송군비 장군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군비 장군</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사(丁巳)에 왕이 몽고병들이 여러 섬들을 공격을 도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이광(李廣)과 송군비(宋君斐)를 파견하여 주사(舟師) 3백명으로 남하하여 몽고병을 막도록 하였다.</li> <li>기미(己未)에 이광 송군비가 영광(靈光)에 이르러 길을 나누어 몽고병을 치기로 약속하였는데 몽고병이 알고 방비하니 광은 섬으로 돌아가고 군비는 입암산성을 지켰는데 성중에서 힘센 장정들은 모두 적에게 투항하고 오직 늙은이와 어린 사람만 남게 되었다. 하루는 군비가 거짓으로 연약하고 쇠약해진 사람 몇 명을 내보내니 성밖에서 이것을 본 몽고병이 양식이 다한 것으로 여겨 병사를 이끌고 성 아래에 이르렀다. 이에 군비가 정예의 병사를 이끌고 펼쳐 일어나 몽고병을 패배시켰는데 살상한 적군이 아주 많았고 적장 4명을 사로 잡았다.</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사 24권 세가24, 고종(高宗)3</li> <li>○ 고려사절요</li> <li>○ 동사강목</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8. 윤진순의비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진</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진(: 1548~15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계방(季邦), 호는 율정(栗亭). 판교였던 윤강원(尹剛元)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고, 효행이 뛰어나 음서(蔭敍)에 의하여 사옹원봉사(司饗院奉事)에 임명되었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경수(金景壽)를 맹주로 한 장성 남문창의에 참여하여 종사로 활약하였다. 이듬해에는 왜적이 장차 전라도로 침입하여 울것을 예견하고,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李廷菡)에게 입암산성(笠巖山城)의 수축을 건의하였다. 이 산성은 왜란 전에 약간의 수리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이의 속행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이 건의가 허락되어 군량을 저축하기 위한 창고를 건축하고 포루를 새로 마련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1597년 왜적이 남원을 유린하고 장성에 침입하자, 그는 수백명의 의병을 지휘하여 입암산성을 사수하려 하였으나 힘이 부</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62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8. 윤진순의비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진</li> </ul>
참고자료	<p>쳐 산성의 함락과 함께 순국하였다. 그의 처 권씨(權氏)도 남편의 비보를 듣고 자결하였다. 조정에서는 좌승지(左承旨)를 추증하였으며, 산성 내에 순절비를 세워 충절을 기리도록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병장 윤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진(尹軫)선생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올곧은 선비로 유명했던 판교 윤강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자는 계방(季邦)이고 호는 율정(栗亭)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일찍이 김인후 선생이 후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학문에도 불구하고 입신양명에 관심이 없어 과거를 보지 않았답니다. 선생은 효행도 뛰어났는데, 부친의 상을 당하자 너무나 애통하게 여겨 주변 사람들까지도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변사람들의 천거를 통해 음서(蔭敍)로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과 사옹원(司饗院) 봉사(奉事)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li>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62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8.윤진순의비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병장 윤진</li> </ul>
참고자료	<p>장성으로 내려와 김경수(金景壽)선생을 맹주로 한 장성 남문 창의에 참여하여 종사로 활약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왜적이 장차 전라도로 침입하여올 것을 예견하고,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李廷菡)에게 입암산성(笠巖山城)의 수축을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허락되어 선생이 입암산성 수축의 책임을 맡아 군량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를 건축하고 포루를 새로 마련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p> <p>(중략)</p>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9).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 61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9. 맨발로 걷기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맨발로 숲길 걷기</li> </ul>
참고자료	<p>○ 맨발로 걷는 것은 숙면, 소화기 계통 강화, 변비 해소 등에 아주 효과가 좋다. 맨발로 걸으면 먼저 마사지 효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된다. 또한 장에 자극을 주어 소화와 배변 활동을 돕는다. 특히 변비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방법이 숲길 맨발 걷기이다.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란 책을 쓴 박동창씨에 따르면 맨발 걷기는 남자의 성기능을 강화시키고, 갱년기 여성의 생리 활동도 활발하게 해주며, 무좀과 발 냄새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한다.</p> <p>그러나 맨발 걷기는 30분 이상 하면 몸에 무리가 오기 쉽다.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은 피부가 연약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임산부에게도 맨발 걷기는 위험하다.</p> <p>맨발 걷기가 끝나면 발을 깨끗이 잘 씻고 마사지를 해주어 발의 피로를 풀어 주는 것이 좋다.</p>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으로 떠나는 여행(2007). 심원섭/지성사 74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10. 옛 성내리 마을	
주요어 정리	○ 마을사
참고자료	<p>○ 마을사</p> <p>- 입암산성 내에 있었던 마을로 전주이씨 . 천안전씨 . 의령남씨 등이 1970년대까지 살았다고 한다. 공자(孔子)의 유교를 다시 밝힌다는 경정유도(更正儒道)를 믿으며 성인은 갓을 쓰고 처녀 총각은 땃기를 띠채 살았던 곳으로 해방 후 까지 8호가 살다가 6.25때 가옥이 전소되고 마을민은 덕재리로 피난하여 5년만에 돌아 왔으나 산중 생활의 불편과 3년간의 흉년 등으로 1980년 1호만을 남긴채 모두 타지로 이거하였다. 1987년 1호마저 정읍으로 이거하고 농사만을 지으러 다닌다. 성내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생겨난 이름이다.</p>
참고문헌 및 출처	<p>○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63, 177p.</p> <p>○국립공원관리공단(2009).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 12~23, 66p.</p> <p>○장성문화원(1989). 장성군마을사(북하면편). 297,298p.</p>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II 산성내습지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의 역할</li> <li>○ 산지습지</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서식 환경을 제공, 생산력의 보고, 수문학 및 수리학적 기능, 기후조절기능, 수질오염물질 제거</li> </ul> </li> <li>○ 산지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인 산지 습지로는 대암산용늪, 무제치늪, 화엄늪, 신불산 고산습지가 있다. 이들은 환경부에서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보호 관리를 위하여 습지 자체보다 더 넓은 면적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중략- 우리나라에서 산지 습지가 중요한 이유는 희소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달된 산지습지가 적어 이곳에 의존하는 생물의 개체수가 매우 적다. 특히 산지에 발달한 습지에 의존하는 식물과 동물들은 다른 장소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종다양성 측면에서 매우</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2007). 내장산국립공원자원모니터링 3차년도. 353~354p</li>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6). Group Study 발표문집Ⅲ. 85p</li> <li>○손병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습지생태 체험교육이 아동의 습지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1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11 산성내습지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의 역할</li> <li>○ 산지습지</li> </ul>
참고자료	<p>중요하다. 이들이 서식하는 서식처를 포함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지습지는 모두 보호되어야 마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의 하나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을 수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위 ‘자연의 콩팥’으로 비유되고 있다. 즉 습지는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뿐 아니라 홍수를 방지하고 해안의 침식을 억제하며 지하수의 양을 조절하는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대한 먹이사슬과 풍부한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습지를 ‘생물의 백화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2007). 내장산국립공원자원모니터링 3차년도. 353~354p</li>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6). Group Study 발표문집Ⅲ. 85p</li> <li>◦손병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습지생태 체험교육이 아동의 습지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1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12. 녹두장군 전봉준	
주요어 정리	○ 전봉준 장군의 최후
참고자료	○ 1894년 11월 공주 우금치 전쟁에서 밀린 전봉준은 원평 태인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입암산성과 백양사를 거쳐 회문산 아래 순창 피노리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부하 김경천의 밀고로 관군의 기습을 받았다. 관군이 주막을 에워싸니 전봉준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버텼다. 관군은 장작더미 위에 불을 질렀고 전봉준은 필적 뛰어 담을 타넘다가 일본도에 발뒤꿈치를 맞아 무릎이 꺾이고 말았다. 그날 어찌나 두들겨 맞았던지 하루면 갈 길을 이틀에 걸려 순창읍내로 끌려갔다. 전봉준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지만 조금도 기개가 꺾이지 않았다. 벼슬아치들을 보고도 ‘너’ 라고 꾸짖으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및 출 처	○허시명/웅진씽크빅(2004). 비주, 숨겨진 우리술을 찾아서.139p ○강준만/인물과 사상사(2007). 한국근대사산책2. 227~228p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58p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12. 녹두장군 전봉준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봉준 장군의 최후</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두장군 전봉준! 마지막 여정을 따라</li> </ul> <p>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은 장성군과도 관련이 깊은데 국립공원 주변의 역사유적인 황룡전적지는 동학군이 대승을 거둔 기념 사적지이며 입암산성과 백양사는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전봉준이 재기를 노리며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곳은 장군샘이라고 불리는 샘물이 있어 전봉준의 친필로 알려진 남천감로 각자가 남아 있기도 하다.</p>
참고문헌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시명/웅진씽크빅(2004). 비주, 숨겨진 우리술을 찾아서.139p</li> <li>○강준만/인물과 사상사(2007). 한국근대사산책2. 227~228p</li>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58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13. 송정행상 각자	
주요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정행상랑 명 각자</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정행삼랑 명 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재화장실 근처 개울가 바위에 새겨진 일제시대 때 이곳에서 살며 우편국장을 한 송정행삼랑(松井幸三郎)과 소림소삼랑(小林小三郎)이 1929년 바위에 새긴 불방비이다. 국권을 빼앗긴 일제시대 때 이와 같은 각자가 많은 명산에 새겨졌는데, 새긴 사람이나 내용이 중요하지 않지만 일제시대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산하가 명들어갔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li> </ul> </li> </ul>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li> <li>○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1p</li> </ul>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13. 송정행상 각자	
주요용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조수 구제</li> </ul>
참 고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시대에도 ‘수렵규칙’ 이라는 법률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온 일본 관리들은 귀국할 때 한국의 호랑이나 표범 모피를 가져가려고 ‘유해조수 구제’ 라는 명목으로 많은 야생동물을 포획하였다. 조선휘호와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 따르면, 1915~1942년에 해수구제라는 명목으로 호랑이 97마리·표범 624마리·곰1,059마리·늑대 1,369마리를 포획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제 포획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li> </ul>
참고문헌 및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 푸름을 닮은 야생동물(2000), 유병호/다른세상. 223p</li> </ul>